

한국어의 공손성과 간접표현*

호정환**

Ho, Jung-hwan. Politeness and Indirect Expressions in Korean. Indirect speech acts theory has recently raised huge interest of the issues in the general theory of language usage. The leading studies in area of indirect speech acts theories are J.L. Austin's, J.R. Searle's, and H.P. Grice'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indirect speech acts in Korean that are crucial issues for politeness in discourse context of situation. However, few politeness studies are carried out in relation to indirect speech acts in Korean. The definition of indirect expressions adopted in this study takes a broad concept of speech acts involving implicature and indirect speech acts as well.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s that Korean can be more politely expressed when speakers adopt appropriate use of indirect expressions in discourse context. Referring to studies from J.L. Austin's theory of locutionary, illocutionary and perlocutionary acts,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J.R. Searle's illocutionary speech acts as a theoretical frame work to explain indirect expressions in Korean. Five indirect expressions, that is, illocutionary speech acts, are taken for explanation in this study such as stating, requesting, ordering, promising and inviting. Indirect expressions in politeness context generally operates pretty much on the principle that one must place higher value on others and lower value on self, and that the mechanism of politeness must be understood as indirect and suggestive manner in order to weaken or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assertion, turning it into suggestion. This study also attempts to explain some restrictions on using indirect expressions in politeness context.

Key words: politeness in Korean, indirect speech acts, indirect expressions in Korean

1. 서론

한국 사회는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임을 자처하면서 공손성을 중요한 사회적 덕목으로 삼고 있다. 공손성은 본질적으로 사회윤리적인 문제이지만, 언어 형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국어는 다른 언어에서 볼 수 없는 엄격한 언어예절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규범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는 경어법이 발달해 있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경어법 표현에 어긋나는 경우 어휘나 문법 오류보다 더 불쾌하게 여겨지는 것은 예의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대화에서 분명하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공손하게 전달하는 것이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열쇠가 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하는 문제보다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문제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KSPS)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 (MOE) (AKS-2010-CAA-2015).

** 中國文化大學 韓國語文學系 教授

에 초점을 두고 접근한 화용적 원리가 바로 공손성 개념이다. 공손성은 언어 형식에 고정된 문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언어 표현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용적 원리나 언어 사용상의 책략으로 파악되어 왔다. 한국어는 어떤 언어보다도 사회학적인 인간관계가 언어학적으로 그대로 실현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접근하는 한국어 공손성 문제는 우선 경어법을 중심으로 학습 목표가 세워진다. 일단 경어법에서의 문법적 기준이 만족되어야 의사소통 자체가 가능하게 된다.¹

그러나 경어법을 써서 단순히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공손한 표현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어법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도 같이 사용해야 공손적인 표현을 이룩할 수 있다. 특히 명령, 지시, 부탁, 요청 등 청자에게 부담이 되는 발화를 할 때 어떻게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되거나 체면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화자는 직접적인 발화 대신에 간접적인 발화를 선호하게 된다. 경어법과는 달리 여러 상황 속에서 고정된 문법 형식을 떠나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되는 간접적인 표현에 대한 연구가 다소 진행되었으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지 않고, 또한 부분적인 개별 화행에 대한 연구뿐이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수행되는 발화를 보면 화자의 발화 의도를 담고 있는데, 발화된 언어 표현이 언제나 발화 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때로는 발화의 언어 표현이 간접적으로 발화 의도를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

Searle(1969, 1979)은 간접화행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가 공손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면서, 공손성과 간접화행의 긴밀한 관계를 밝히고 있다. 공손성이 화용적인 개념이고 그 실현 양상도 한국어 구문론적 특성인 교착성에 기인하여 보편적으로 한 개 이상의 형태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간접화행을 간접표현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살펴볼 것이다. 학교 문법식 경어법만으로는 외국인 화자가 궁극적 목표로 하는 성공적 의사소통의 관건이 되는 공손성을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데에 출발점을 두고 한국어 속에 나타나는 간접표현 양상과 그 제약을 살펴보고자 한다.

¹ 경어법은 학자들에 따라 경어법, 대우법, 존대법, 높임법, 혹은 높임 표현 등으로 불리고 있다. 여기서 ‘법’이라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 나이, 재산, 직업, 사회적 역할 등에 걸맞는 언어예절이 법률과도 같이 엄격하게 지켜진다는 의미이다.

2. 공손성과 간접표현

언어학에서 공손성에 대한 논의는 Lakoff(1972)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Brown & Levinson(1987)에 와서 개인 공손성 책략 개념으로 정리되었다. 사회의 정상적인 성인 화자는 공적인 자신의 이미지, 즉 체면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일상 언어 생활에서 화자와 청자의 체면 유지가 대화의 목적이 된다고 한다. 체면 욕구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체면 위협 행위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는 가능한 한 체면 위협 행위를 피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손성 대화 전략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²

공손성 설명이 단순히 문장의 언어구조로서의 의미 해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상황맥락 내에서 화용적 발화 의미가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화행이론(speech acts theory)의 연구가 활발해졌다. 화행이론에서는 발화를 직접 화행과 비직접적인 방식의 간접화행으로 크게 구분한다. 공손성은 간접화행에 더 관심을 갖는데, Austin(1962)과 Searle(1969, 1979)의 간접화행 연구는 어느 누구보다 독보적이다. 모든 발화는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는 Austin(1962)의 화행이론³을 이어 받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Searle은 발화행위를 수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모든 발화행위는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데, 언표내적 행위의 독자적 효력 혹은 글자 그대로의 말 힘(literal force)과 언어적 비언어적 맥락 속에서 수행되는 실제적 효력이 일치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발화행위를 직접화행과 간접화행으로 나누고 있다. Searle(1979)의 관심은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하는 간접화행의 이해 과정이었다. 청자가 간접화행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Searle(1979)은 추론에 의한 이해 과정으

² Brown & Levinson(1987)은 체면을 크게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인 ‘적극적 체면(positive face)’과 타인의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려는 욕구인 ‘소극적 체면(negative face)’으로 구분하였다. 화자의 발화가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만한 여지가 크면 클수록 더 높은 수준의 공손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공손한 표현과 간접적인 표현은 모두 청자의 체면 손실을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한 화행전략으로 보았다.

³ Austin(1962)은 화자가 수행한 모든 발화를 화자가 행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그 발화 행위를 언표적 행위(locutionary act), 언표내적 행위(illocutionary act), 음향적 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다. 언표적 행위는 발화 행위이고, 언표내적 행위는 언표적 행위를 수행할 때 함께 수행되는 진술, 명령, 질문, 약속 등의 행위이고, 음향적 행위는 발화 행위로 인하여 청자를 설득하고 반응하게 하는 등의 영향을 초래하는 효과 행위이다. 이 중에서 언표내적 행위가 Austin의 관심의 초점이었으며, Searle은 언표내적 행위 개념을 간접화행 이론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로 설명하고 있으며, 발화에 내재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발화 행위는 음성적 행위, 언표적(형태적) 행위, 그리고 언표내적(의미적) 행위를 포함한다. 언표내적 행위는 발화함으로써 진술, 명령, 질문, 청유, 약속, 경고 등의 의사소통력을 가지고 있는 언어 행위의 핵심이다. 언표내적 행위의 독자적 효력은 언표내적 효력이라 하기도 하며, 이것은 어떤 것을 발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른 행위를 수반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화자가 청자를 결국 설득하고, 놀라게 하고, 기쁘게 하는 등의 실제적 효과를 갖는 것이 독자적 효력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수건 좀 주세요."라는 발화행위는 요청이나 명령과 같은 독자적 효력을 나타내고, 그 결과로 청자가 수건을 가져다 주게 되는 실제적 효과가 발생한다. 즉 문자 그대로의 말 힘을 나타내는 독자적 효력과 실제적 효과가 일치하는 발화행위로 직접화행임이 분명하다. 간단하게 말하면, 직접화행은 문자 그대로의 말 힘대로 수행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간접화행은 이와 달리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간접화행은 대부분 직접화행의 언어구조를 토대로 문장 형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표현된다. 화자는 더 큰 실제적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수건 좀 갖다 주면 좋겠어요." 혹은 "수건 좀 갖다 주겠어요?"와 같은 진술 혹은 질문 형식의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직접화행 대신 간접화행을 쓰는 주요 동기가 공손성 원리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있다. 상대방의 체면을 위해 간접화행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명령 형식 등 일방적 지시에서 오는 강압성을 줄여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접화행이 어떤 방식에 근거하여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과 결부되는가 하는 문제이다.⁴ 예를 들면, 청자의 능력 및 의

⁴ Searle(1969:66)은 화행에 대해 일반 의미이론에 다른 철학적인 문제까지 부가해 생각한다. 발화의 잘못 여부 판별, 언표내적 행위의 규칙 역할 담당을 하는 것이 적정조건(felicity condition)이라고 주장하며, 이 언표내적 화행의 필요조건, 충분조건을 다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① 명제 내용 조건: 발화의 명제 부분에 의해서 표현된(혹은 표현되어야 할) 의미를 명시한다. (예: '약속'의 행위에 있어서 반드시 화자의 어떤 미래의 행위를 지시한다.)
- ② 예비 조건: 언어 행위의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명시한다. (예: '감사'의 행위에 있어서 화자는 청자가 화자에게 유익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③ 성실성 조건: 언어 행위가 성실히 수행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다. (예: '사과'의 행위가 성실한 말이 되기 위해서는 화자가 앞선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가져야 한다.)
- ④ 필수 조건: 관습적으로 언어 행위가 어떻게 간주되어야 하는 것을 명시한다. (예: '경고'의 행위에 있어서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청자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간주되어야 한다.)

도에 대해서는 화자의 선택권 하에 놓이는 것이 아니므로 묻는 방식의 문장 형식을 쓰고, 화자의 태도 및 감정 내지 청자에 대한 믿음은 진술 형식을 취하여 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공손하고 예의 있는 화행을 쓰게 되는 것이다. 간접적인 표현은 청자를 배려하는 보다 세련되고 우아한 말투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즉 간접화행 사용은 명료보다는 공손이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인식 하에 그리고 발화 당시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요소로의 맥락에 의해 화자와 청자 간에 이해의 폭이 형성되어 그 발화가 어떤 의미를 뜻한다는 것에 대한 상호 인지가 있게 마련이라는 가정에서 실현된다. 발화의 간접성은 화자의 발화가 우회적으로 완곡하게 전달되어 공손성 의미를 덧붙이게 된다는 것에 있다.

한국어의 공손성에 대한 연구는 조준학(1979, 1980)에서 시작되었으며, 대다수의 연구가 한국어가 지니는 구문론적 특성과의 관계로 공손 표현을 밝히고 있다. 김선희(2001), 전해영(2004), 구현정(2004), 김명운(2009), 유혜령(2010) 등에 이르기까지 공손성을 실현하는 표현 형태들이 다각도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허상희(2009) 등 연구들은 경어법이 한국어 공손성을 구현하는 데 충분조건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아주 높은 등급의 종결어미를 사용하여도 공손하지 못한 경우를 밝히고, 공손성 이론에 화용론적인 분석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Austin(1962)과 Searle(1969, 1979)의 화행론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국에서 간접화행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것은 김태자(1986, 1989)에 의해서였다. 그 동안 논의가 정리되지 않았던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의 관계가 김태자(1987, 1989) 연구를 통하여 비교적 분명하게 설명되었다. 김태자는 직접화행과 비직접화행으로 구분하여 비직접화행 속에 간접화행 및 대화적 함축을 포함하는 기타 화행을 포함시켜 간접화행 의미를 보다 명백하게 분석하고 있다. 간접화행은 대부분 직접화행의 언어구조를 토대로 문장 형식을 바꾸는 방식으로 된다. '-하겠니?', '-할 수 있겠니?', '-으면 좋겠다' 등의 관습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간접화행에 관련된 비문자적 의미는 Grice(1975)에 의해 대화적 함축(implicature) 개념으로 설명된다. 함축은 대화의 상황맥락 속에서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직접화행의 명제 내용과 전혀 다른 발화로 간주되며 대부분 비관습적 표현인 대화상의 함축으로 실현된다. 예를 들면, 혼자 해외 배낭 여행을 가겠다고 조르는 대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마음 좀 놓고 살자.”라고 말한다면, 이 의미의 실제 전달 의미는 마음 놓고 살고 싶다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라 젊은 여자 혼자 배낭여행을 하게 되면 혹 어떤 사고가 있을까 마음이 안 놓이기 때문에 가는 것을 허락하기 힘들다는 간접적인 거절의 함축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함축에서는 발화의 명제가 암시를 통해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⁵

대화적 함축과 간접화행의 관계는 화행이론의 관점으로 볼 때 모든 발화행위는 언표내적 효력을 가진다는 Searle(1979:35, 58-64)의 설명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Searle(1979)은 구체적으로 간접화행을 어떤 언표내적 행위가 다른 언표내적 행위를 수행함에 의해서 수행되는 화행으로 규정하고⁶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하여 대화적 함축으로 간접화행을 설명하고 있다. "오늘 밤에 영화 구경 가자."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하자. "나 시험 공부해야 돼."라는 대답을 할 때 일차적 언표내적 행위는 영화 구경 가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의사의 전달로 나타나고, 이차적 언표내적 행위는 문자 그대로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진술로 설명된다. 여기 대답에서 사용된 대화적 함축은 거절의 이유가 정당하고 완곡하게 전달되게 하여 제안을 한 사람의 호의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모든 발화행위가 언표내적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직접화행이 아닌 비직접화행을 광의의 간접화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대화적 함축도 광의의 간접화행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겠다. 본고에서는 간접화행은 근본적으로 대화적 함축의 하부 구조라는 Searle(1979)의 주장과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이 일괄적으로 비직접화행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김태자(1987, 1989)의 연구에 따라 간접화행 명칭에 대신하여 간접표현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즉, 본고에서의 간접표현은 간접화행과 함축을 포함하는 것으로 직접화행의 상대적 개념인 비직접화행에 속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한국어에서는 직접에 대해 간접이란 말이 상대적으로 쓰

⁵ Grice(1975:41-58)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화를 위해 '대화 협동의 원칙'이라고 하는 네 가지 기본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다.

- ① 질의 원리(maxim of quality) : 진실을 말하기.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 ② 양의 원리(maxim of quantity) : 정보의 양. 진행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
- ③ 관련성의 원리(maxim of relevance) : 대화와 관련 있는 말만 하라.
- ④ 태도[양식]의 원리(maxim of manner) : 명료하게 말하라. 모호성을 피하라. 중의성을 피하라. 간결하게 말하라. 조리 있게 말하라.

⁶ Searle(1979:35). "The inferential strategy is to establish, first, that the primary illocutionary point departs from the literal, and second, what the primary illocutionary point is."

이고 있다. 그래서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경우 간접화행이든 혹은 대화적 함축을 포함하는 여러 표현들이 됐건 간에 모두 비직접적, 즉 간접적으로 말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보통 하나 이상의 통사 의미 형태소들로 구성되어 공손성이 실현되기 때문에 간접적인 ‘표현’이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는 문장의 종결어미, 즉 문법적 종결표지와 그 언표내적 기능이 일치하면 직접화행이고, 일치하지 않고 다른 화행을 수행하면 간접표현으로 본다. 간접표현에 대하여는 검양이나 간접화행이라 하여 몇 연구가 있을 뿐이다. 장석진(1975)과 이희자(1983)에서는 의문문 형식의 간접적인 표현이 공손한 표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손세모들(1989)에서는 문장 형식에서의 의문문과 청유문을 중심으로 덧붙임 방식에 의한 간접표현과 종결어미 형태의 교체에 의한 것으로 간접표현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준희(2001)는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진술화행과 청유화행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공손성의 정도와 간접성에 관한 전혜영(1995) 등의 연구를 보면 간접성이 높을수록 공손하다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즉 간접성의 정도가 클수록 공손하고, 청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소수의 이론적 접근, 청유문 혹은 의문문 등으로 실현되는 간접표현의 양상 혹은 간접성의 정도와 공손성 문제가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을 뿐이다. 한국어 속에서 실현되는 총체적인 간접표현 양상과 그 제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어 발화행위는 문장 형식의 종결어미에 화행이 확연히 드러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종결어미 분류를 발화행위로 정리한 정중수·이필영(2005)을 참고하여 문장 형식을 진술(문), 질문(문), 명령(문), 청유(문), 약속(문)으로 구분하여 간접표현을 설명하는 틀로 삼고자 한다.⁷

(1) 가. 우리는 한국에 간다. (진술)

⁷문법적 종결표지(정중수·이필영, 2005:52). '해라체', '해체', '해요체', '합쇼체'만 정리.

진술: -다, -구나, -, -아/어, -지, -야, -군, -네, -르걸, -지, -르래, -군, -구먼, -에요, 르걸요, -요, -지요, -군요, -습니다, 등

질문: -냐?, -나?, -요?, -야?, -아/어, -지, -니?, -르까?, 르래?, -르까요?, -르가요?, -르니까?, 등

명령: -라, -아/어, -지, -아/어요, -지요, -십시오, 등

청유: -자(꾸나), -아/어, -지, -습니다, 등

약속: -다, -마, -르게, -르게요, -습니다, -오리다, 등

- 나. 이것이 네 책이냐? (질문)
 다. 철수야 그만 집에 가자. (청유)
 라. 소식 들으면 곧 전화해라. (명령)
 마. 내일 전화할게요. (약속)

그러면, 간접표현을 통하여 공손성이 어떤 양상으로 실현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2) 가. 창문 닫아.

- 나. 창문 닫아 줘.
 다. 창문 닫았으면 좋겠다.
 라. 창문 닫아 주겠니?
 마. 창문 닫아 줄 수 있겠니?
 바. 바깥 공기가 찬데.

위의 예문에서 (2 가)만 직접화행이고 나머지는 모두 비직접화행, 즉 간접표현에 속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직접화행 '요청'의 언표내적 효력을 동일하게 지닌다. 이 중에서 (2 나)에서 (2 마)는 직접화행 '창문을 닫다'라는 발화 명제 내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2 바)는 직접화행의 명제 내용을 지니고 있지 않다.

간접화행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2 나)를 직접화행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첨가된 보조동사 '주다'는 명령문에 개입되어 일반 명령문과는 다른 '요청'의 의미 기능을 드러내는 일이 많다. 즉 상대방에게 직접 행동을 부과하지만 일방적인 지시 사항으로서가 아니라 부탁의 성격이 더 강하므로 일반적인 명령과는 구별된다고 하고 있다(손세모들, 1989). '주다'는 '봉사' 혹은 '시혜'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동사에 상대를 위하여 동작한다는 뜻을 가진다. (2 나)가 (2 가)보다 행동 부과 강압성이 적은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보조동사 '주다'의 개입은 명령의 일방적 지시에서 오는 강압성을 줄이기 위한 간접표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청은 상대를 위한 배품이라는 의미 전달을 줌으로써 청자에게 부과된 압력을 희석할 수 있다.⁸

⁸ 요청 표현을 할 때 화자의 겸손이나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기 위해 '-주다' 이외에 '-드리다', '-보다'와 같은 보조동사도 같은 맥락으로 공손 기능을

(2 다)는 ‘-으면 좋겠다’ 관습적 표현으로 실현된 간접표현이다. (2 바)는 명제 내용이 ‘창문을 닫다’ 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실현된 비관습적 표현으로 대화적 함축에 속하지만, 실제적 전달 의미는 창문을 닫아 주세요라는 소망의 의사 표현으로 명제 내용의 언표내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표현에 대하여 직접화행의 명제 내용과 관계없이 언표내적 효력의 간접적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속에 간접화행과 함축을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⁹ (2 바)는 간접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화행의 명제 내용을 유지하면서 표현 형식을 진술, 명령, 청유, 약속, 질문으로 변형시켜 실현하는 간접표현 양상을 하나하나 살펴 보겠다. 감탄의 경우 간접표현 양상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3. 간접표현 실현 양상

3.1. 진술문에 의한 간접표현

한국어에서 진술문은 질문화행, 명령화행, 청유화행, 약속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진술문이 각 화행을 수행할 때, 즉 간접표현으로 공손 표현을 나타내게 된다.

(3) 가. 생수를 사 오면 좋겠다.

나. 이 책상을 다른 교실로 옮겼으면 하는데요.

다.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은 안하는 게 좋아.

라. 갑자기 계획을 바꾸려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3) 예문들은 모두 진술문으로 명령화행을 수행한 것이다. (2 가)는 ‘-면 좋겠다’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진술함으로써 ‘생수를 사 와’라는 명령화행보다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덜어주고 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주게

한다고 본다.

⁹ 간접화행을 논할 때 명제 내용의 언어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관습적 표현으로 나타내는 관습적 간접화행과 그렇지 않은 비관습적 간접화행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 관습적 간접화행은 ‘-ㄴ 수 있다/없다’, ‘-ㄴ래?’, ‘-주겠어?’, ‘-면 좋겠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접화행의 명제 내용을 유지하면서 변형시킨 간접표현을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간접표현을 관습적 간접화행과 비관습적 간접화행을 포함시켜는 광의의 접근으로 살펴본다.

되어 공손한 표현이 된다. (3나)와 (3다) 같은 예도 화자의 직접적인 명령을 피하고 선호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에게 우회적으로 명령 혹은 충고를 하고 있다. (3라)의 경우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답을 요청하는 대신 화자의 희망을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남겨두어 부담감을 줄인다.

(4) 가. 아 참! 잔돈을 안 가져왔어.

나. 선생님 연구실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나.

다. 선생님이 집에 잘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라. 사장님이 사무실에 계신지 알려 줬으면 좋겠어요.

(4) 예문들은 모두 진술문으로 질문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4가)와 (4나)는 만약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고 싶지 않거나, 선생님 전화번호를 찾을 수고를 원하지 않으면 거절해야 되는데 이는 어느 정도 부담감을 안겨줄 수 있다. 명제 내용이 발화 내용에 나타나지 않고, 화자가 자신의 상황만 진술하여 직접 답을 요구하지 않아서 상대방에 대한 부담감을 최대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4다)와 (4라)는 명제 내용이 청자의 미래적 요청을 나타내고자 할 때 대부분 '-은지/는지/을지 (모르겠다/궁금하다/알고 싶다/알았으면 좋겠다/알려 주기를 바란다, 등)' 진술 문장 형식으로 질문화행 간접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직접화행을 사용할 경우 청자에게 회답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데, 청자에 대한 배려를 나타내는 간접표현으로 공손성을 높이고 있다.

(5) 가. 우리 내일 아침기차 시간에 늦지 않으려면 6시에는 일어나야 한다.

나. 너희들은 성공하려면 항상 부지런해야 한다.

다. 나는 농구 말고 배드민턴 치고 싶은데요.

라. 우리들 오늘 한국음식 먹기로 했거든요.

(5) 예문들은 진술문으로 청유화행을 실현하고 있다. 화자가 어떤 행위를 하는 이유나 목적 등을 진술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이 이를 통하여 청유의 언표내적 의미를 추론하게 된다. (5가)와 (5나)는 당위적 표현 '-어야 한다'를 사용하여 당위적인 내용을 진술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상대의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권유하는 경우 지시의 명확도가 낮고, 완곡한 지시를 전달하며, 청자의 의지를 중요시 하는 느낌을 주므로 공손한 표현이 된다. (5 다)는 상대방에게 '배드민턴 치자'라는 청유화행을 수행한 것이다. (5 라)도 자기의 의사를 명료하게 밝힘으로써 한국음식점으로 가자는 제의를 간접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이 예문들은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뜻을 덜 주고, 부담감을 덜 주어서 직접화행보다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 공손 원리 중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가. 재미없으면, 다시 돌아온다.

나. 접근하면 발포하겠다.

다. 숙제 안하면 청소를 하게 하겠다.

라. 너 그 여자와 결혼하면 엄마는 죽는다.

(6) 예문들은 모두 진술 문장 형식으로 약속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약속화행이란 화자가 어떠한 행동을 할 것을 미리 정하여 두는 언표내적 효력을 가진 화행이다. (6 가)에서 (6 라)는 미래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이 어떠한 일을 수행할 것임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청자가 자신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화자가 미래에 수행할 행위가 있다는 일종의 경고 화행이 되는 약속화행으로서 대부분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받아들여지기 힘들다. '-으면' 등 미래에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가설 상황을 내세워 경고를 하는 방식이다.

3.2.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

상대방에게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명령문은 명령화행 이외에 진술화행이나 청유화행 혹은 약속화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질문화행은 수행하지 못한다.¹⁰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진술화행 간접표현은 대부분 청자보다 화자가 우위에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¹⁰ 명령문이 질문화행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령화행은 청자가 정보를 얻는 데 비해, 질문화행은 화자의 정보 획득이 우선이고 청자의 정보 인지는 부차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신정보의 획득이나 구정보의 재확인 기능을 수행하는 질문화행의 목적과 명령화행의 수행 목적이 일치하지만, 명령화행의 수행 정도성과 직접성이 질문화행보다 더 강하다. 또한 화자의 발화 의미 전달 측면에서 명령이 정확한 의사 소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이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은 친구 사이나 아랫사람에게 발화할 때일 뿐이다.

(7) 가.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시간 좀 보고 다녀라.

나. 밤 12시 넘어 컴퓨터게임 다시 또 해 봐라.

다. 알았어요. 그만해요. 선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 잘 알아요.

라. 한번만 더 거짓말 해봐라.

(7) 예문들은 모두 명령문으로 진술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허물없는 친구 혹은 선배에게나 나이 어린 사람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7 가)를 보면 ‘약속 시간에 늦게 왔다’는 명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7 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게임을 너무 많이 하니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와 같은 경고와 책망을 진술화행으로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7 다)와 (7 라)에서도 명령을 통해 화자는 선배가 계속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음을 진술화행으로 밝히고 있다. (7 라)에서는 ‘거짓말 하면 안된다’ 명제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명령화행을 통한 간접표현은 상대방 행위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완곡하게 표출하게 된다.

(8) 가. 나도 노래할테니 너도 해라.

나. 선생님도 내일 학교에 나오니 너희도 와라.

다. 이번 선거 표어를 좀 더 짧게 생각해 봐요.

라. (제 3자에게) 조용히 해. 우리 지금 사은회에 관해서 토론해야 해.

(8) 예문들은 모두 명령문을 통하여 완곡한 요청(제안)을 위한 청유화행의 경우로 대부분이 상황 의존적이다. (8 가)를 보면 친구에게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 발화인데, 결국은 화자도 포함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노래 부르자’는 청유화행이 된다. (8 나)도 화자인 선생님이 포함되어 있어 청유의 의미를 담고 있다. (8 다)는 청자의 의향을 물어보는 보조동사 ‘보다’를 사용하여 청자 중심의 청유화행으로 표현하고 있

다. (8 라)는 ‘지금 다른 중요한 사항을 토론하기 때문에(제 3 자가 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는 청유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9) 가. 하기만 해봐.

나. 너 다시 한 번 이런 짓 하면 죽을 줄 알아.

다. 전화 받기만 해라. 혼날 줄 알아라.

다. 떠들기만 해라. 쉬는 시간을 안 주겠다.

(9) 예문들은 모두 명령문으로 약속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청자는 화자가 명령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음을 추론하게 되며, 결국 경고와 책망의 실제 행위가 있음을 알리는 약속화행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 라', 혹은 '-어 봐'의 문법적 표현을 지닌 명령문이지만 청자에서의 미래 특정한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화자가 원하지 않고 있음을 비교적 명백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약속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3.3. 청유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

청유 문장 형식은 행동의 직접 부과라는 점에서 명령이나 요청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명령과 청유는 행동 부과 대상 범위에서 차이를 가진다.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인 명령보다는 화자에게까지 행동이 함께 부과되는 청유 쪽이 강압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 청유는 글자 그대로 요청하고 권유하는 것이어서 일종의 제안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화자와 청자가 같은 일을 부과받음으로써 얻는 공동체 효과에서 비롯된다.

청유문은 상황에 따라 진술화행이나 명령화행 혹은 약속화행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청유문을 사용하는 것은 불손한 표현으로 여기고 있다. 즉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합시다' 청유문을 쓰지 않는 것이 예의이다. 다만 청자와 화자가 동격이거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발화하는 경우에는 청유문으로 수행된 간접표현이 공손한 표현이 될 수 있다.

(10) 가. 그만 쉬고 수업을 시작하자.

나. 컴퓨터 그만 하고 이제 자자.

다.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라. 질서를 지킴시다.

(10) 예문들은 청유문으로 명령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명령문이 쓰일 자리에 청유형이 쓰이는 것은 청자에 대한 행동 부과를 좀더 온건하게 표현하여 강압적으로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다. 간혹 청자를 화자의 행동에 끌어들이어서 수행을 쉽게 하려는 전략이 사용된 청유 형식의 약속화행이기도 하다. (10가)와 (10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어린이 혹은 학생에게 하는 명령화행으로 쓰는 간접표현이다. 어린이나 학생이 해야 할 일들을 알아 듣기 쉽게 직접 행동을 지시하면서도 화자가 같이 하자는 것은 청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대신 친근감을 주고 심리적 거리를 줄여 강압성을 덜어 주게 된다. (10다)와 (10라)의 경우는 청자와 화자를 같이 공동체로 묶어주고 있다. 공동체 형성은 행동 부과의 강압성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대중에 대한 홍보 혹은 부정 명령의 간접 표현에 청유형이 쓰이는 것은 직접 행동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화자가 청자와 마찬가지로 행동 수행 명령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언어적으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3.4. 약속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

약속화행이 한국어에서 진술, 명령, 청유, 질문 화행 등과 동일한 비중을 가지는 주요 화행임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정종수(2013)로 약속 문장 종결어미 사용으로 진술, 질문, 청유의 언표내적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약속에서의 언어 행위는 특정 발화 상황에서 화자가 청자를 대상으로 하여 명제 행위에 대해 수행동사를 통하여 언약 행위를 하는 것이다. 다른 문장 종류와 변별되는 특성으로는 약속하는 상대는 반드시 2인칭의 청자이며, 약속의 주체는 반드시 화자라는 것 등이다.

- (11) 가. 내가 할 거야.
 나. 내가 할 테야.
 나. 내가 할래요.
 다. 내가 하겠어요.
 라. 내가 해야겠어요.

(11) 예문들은 약속문으로 그것을 실현할 것임을 다짐하는 진술화행을 수행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약속화행의 다짐의 속성에 속한다. (11 가)에서 (11 라)는 1 인칭 주어와 사용되었을 경우로 화자가 어떤 행위를 앞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표현한다. 즉, 대부분 '-을 것', '-을 터', '-올래', '-겠-', '-어야겠-' 등 약속화행 간접표현을 사용하여 그것을 반드시 실현할 것임을 상대방에게 다짐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흔히 쓰이는 부사들은 '기어이, 기어코, 꼭, 반드시, 확실히, 분명히, 기필코' 등으로 화자의 약속 의지 의미를 더욱 명백하게 전달하고 있다.

(12) 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그냥 돌아오겠어요.

나. 이 일은 내가 맡아 할까?

다. 이제 시작합니다.

(12) 예문들은 진술문, 질문문, 청유문 등의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약속화행 간접표현들이다. (12 가)는 미래에 일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자신이 취할 행동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12 나)는 자신이 미래에 할 행위를 청자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공손하게 나타낸 약속화행이다. (12 다)는 청자를 화자의 행동에 끌어들어서 수행을 쉽게 하려는 공손 책략이 사용된 청유 형식의 약속화행이다.

(13) 가. 내가 하고 싶어요.

나. 내가 하기로 했어.

다. 내가 하고자 해요.

라. 내가 할 참이야.

(13) 예문들은 화자의 단순한 소망을 표현한 것으로 공손한 표현은 될 수 있어도 약속화행의 간접표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정종수, 2013). 다만, 화자는 (13 가)에서 소망을, (13 나)에서 결정을, (13 다)에서 의지를, (13 라)에서 계획을 공손하게 진술한 것뿐이다.

3.5. 질문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

명령이나 요청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질문 혹은 의문 형식으로 간접 표현하는 것은 여러 언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질문 형식은 간접표현의 발화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간접표현 양상에 있어서도 다양한 표현으로 실현된다. 일상생활 한국어에서 흔히 사용되는 관용적인 간접표현 중 대부분은 의문문 형식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공손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사회에서 많이 쓰는 것이다.

(14) 가. 창문을 열어 줄래?

나. 담배 있어?

다. 내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라. 좀 어둡지 않아?

(14 가) 예문은 질문으로 표현되는 요청의 간접표현 중 가장 흔히 쓰이는 것으로 청자의 능력을 묻거나 의도를 묻는 판정의문문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청자에게可否를 묻는 형식이다. 창문을 닫아(열어) 달라는 요청을 '-해 줄래?' 형식을 취하여 상대방에게 선택의 여지를 보다 많이 주므로 공손성을 높여 준다. (14 나)는 '담배를 좀 빌려 달라' 는 명제를 질문 형식으로 상대방에게 거절하는 이유까지 제시함으로써 선택의 여지를 크게 주어서 공손한 표현이 된다. (14 다)와 (14 라)는 화자로 볼 때 혹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행위가 일어나야 할 당위성을 부정의문문의 형식으로 나타내 청자에 대한 선택의 배려라는 관점에서 완곡의 정도를 높이고 있다.

(15) 가. 이 프로젝트 같이 일할 수 있어요?

나. 이 자료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다. 금년 학회에 참석할 수 없어요?

라. 이 일을 월요일까지 할 수 없나요?

(15) 예문들은 요청이나 제안 등에서 상대방의 능력이나 실현 가능성을 질문하는 의문문 형식을 통해 청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하는 간접표현이다. 대부분이 '-줄 수 있으세요(없으세요)?' 관습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좀 더 완곡하게 진술하게 되며, 또한 거절의 경우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없음으로 대답을 하게 되므로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 (16) 가. 이 복사기 써도 돼요?
 나. 이 자료 가져가면 안되나요?
 다. 제가 따라가면 안될까요?
 라. 나한테 말하면 안돼요?

(16) 예문들은 화자가 요청하는 행동을 청자의 허락 구하기 질문으로 하는 간접표현이다. 허락 혹은 허용 표현은 '-으면/어도 되다', '-어도 좋다', '-어도 괜찮다' 등을 사용해서 명령이나 요청을 진술문으로 바꾸어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청자에게 어떤 상황이나 반응이든지 허용한다는 의사를 주므로 공손한 어감을 주게 된다.

- (17) 가. 지금 회의하러 나올래요?
 나. 지금 회의하러 나오겠어요?
 다. 지금 회의하러 나와 주겠어요?
 라. 지금 회의하러 나와 주지 않겠어요?
 바. 지금 회의하러 나와 줄 수 있겠어요?
 사. 지금 회의하러 나와 줄 수 없겠어요?

(17) 예문들은 화자가 청자에게 회의에 나오라는 요청을 질문 문장 형식으로 수행한다. 청자에게 화자의 요청을 이행하려는 의지 혹은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간접표현으로 화자는 요청 제의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긍정 질문보다는 '아니하다' 부정 질문이 더 완곡도가 높은 것은 화자가 요청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청자의 의지 혹은 의향에 달려 있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청자에 대한 배려를 전달하게 된다. 명제 전체를 부정하는 표현은 화자로부터 명제와의 거리를 가장 멀리 두는 방법이며, 그런 이유로 부정문 형식의 공손 표현은 다른 공손 표현에 비해 공손의 정도가 가장 높게 느껴질 수 있다. 또한 봉사를 나타내는 보조동사 '주다'가 첨가되면 완곡도가 더 높아진다. 대체로 (17) 간접표현 예들이 (17 가)부터 (17 사)로 나열된 순서로 공손성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17 나)부터 (17 사)까지의 요청화행에서는 '-겠-'이 첨부되어 있다. 요청 행위는 자신이 희망하는 바를 청자가 해 주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청자에게 체면 위협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때 위협의 정

도를 낮출 수 있는 발화 방식을 택하게 된다. 간접표현, 질문, 완화 표지, 부담의 최소화 등이 있다. 특히 같은 명제적 내용도 발화가 간접적일수록 임의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공손성의 정도가 높아지는데, 한국어에서 직접적인 명령문 대신 '-겠-'을 사용하는 간접표현으로 공손성을 획득하는 게 그 예이다. '-겠-'은 청자에게 화자의 발화가 가지는 영향을 감소시키는 완화어(downgrader)로 기능한다. '-겠-'의 화용론적 의미에 대한 대표적 논의인 전해영(1995)에서는 화자가 사태에 대한 확실성을 가지는 경우에도 짐작 표현을 선택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발화 태도를 [+비확정성] 자질로 나타낸 것이며, 이 [+비확정성]이 청자의 부담을 줄여 공손성을 획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16사)의 예를 보면 청자의 수행 가능성 여부를 묻는 ‘-을 수 있다’와 공손 기능의 선어말어미 '-겠-' 그리고 부정의 문형이 함께 하여 가장 높은 공손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 (18) 가. (저) 지금 (좀) 애기드릴 게 있으니 나오겠어요?
 나. (저) 지금 (좀) 애기드릴 게 있으니 나와 주겠어요?
 다. (저) 지금 (좀) 애기드릴 게 있으니 나와 주지 않겠어요?
 라. (저) 지금 (좀) 애기드릴 게 있으니 나와 줄 수 있겠어요?
 마. (저) 지금 (좀) 애기드릴 게 있으니 나와 줄 수 없겠어요?

(18) 예문들은 질문문으로 수행되는 요청화행 간접표현에 부담을 약화시키는 담화 표지를 사용하여 공손성을 조금 더 높인다. '좀, 잠깐, 조금, 제발, 한번, 약간, 글썄요, 저' 등이 있다.¹¹ 또한 불확정 부사어, ‘혹시(나), 아마(도), 혹, 어쩌면 등’은 의미가 허사화되어 ‘그럴 리는 없지만’을 전제한 불확정성을 증가하여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¹¹ 한국어에서 ‘좀’이나 ‘하나’ 담화표지는 그리스어 지소사(diminutive)인 ‘작음’을 나타내는 원형적 기능에서 왔으나 확대하여 겸손과 친화력을 나타내기 위한 화자의 의도적 책략으로 쓰인다. 이 표현은 한국어에서 긍정적인 공손 책략으로 활용된다. 대체로 화자가 상대방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표현이거나 또는 화자 자신의 재산, 지위, 재주, 학식, 성공 등에 대한 자기 칭찬을 축소화하여 ‘겸손’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로 표현된다(김선희, 2001:93-101). 본 연구에서 언급된 문법 혹은 담화 표지 이외에 공손 기능을 하는 통사적 요소 예들을 참고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피동형(이제야 문제가 풀렸어요.), 사동형(내일까지 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어미(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몸이 좀 아프거든요. 제일을 생각할 여유가 없네요.), 연결어미(길이 막혀서 늦었어. 책을 사야 하는데 돈 좀 주세요.), 인용(친구가 어렵다고 해요.), 생략(제가 읽은 것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돈은 없는데...) 등.

- (19) 가. 배가 고프는데 근처 식당에 갈까?
 나. 이번 일요일에 등산하러 갈래?
 다. 시간이 늦었는데 집에 가야 하지 않아?

(19) 예문들은 질문문으로 실현되는 청유화행을 보여주고 있다. 모두 청자의 의사를 묻는 질문문으로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혹은 같이 하라고 권유하는 것이다. 이 간접표현들이 공손성을 가지는 것은 청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질문문으로 나타내며, 즉, 청유문으로 직접 발화하는 것보다 청자에게 강요하는 느낌을 완화하여 선택의 여지를 더 크게 주기 때문이다.

4. 공손성 간접표현 제약

화자가 공손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발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간접표현의 공손성을 다섯 발화 문장 형식으로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논한 것처럼 공손성은 사람들이 간접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임은 틀림없지만, 화자가 부정적 정서를 전달하고 싶을 때 간접화행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기에는 간접표현이 비공손표현이 되는 경우를 살펴보겠다.

4.1. 질문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

- (20) 가. 나한테 말하지 않겠어요?
 나. 나한테 말하지 못하겠어요?
 다. 당장 말하지 못하겠니?
 라. 조용히 하지 못하니?

(20) 예문들은 질문 문장 형식에서 부정문 '못하다'가 비공손 표현이 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다. (20 가)에서 '아니하다' 부정은 완곡도를 높여 공손을 높이게 된다. 그러나 (20 나), (20 다), (20)에서 '못하다' 부정을 적용시키면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행동을 수행하도록 촉구하거나, 청자가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의미가 전달된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완곡하게 요청하는 뜻은 전혀 없고, 청자에게 요구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협박이나 비난이 동반된 간접표현이 된다.

(21) 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 누구를 죽이려고 그런 말을 해요?

다. 어디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요?

라. 회의에서 큰 소리로 야단치면 어떻게 돼요?

(21) 예문들은 질문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 중에서 의문 지시관형사, 의문 지시대명사, 의문 지시부사 등 설명의문문 형식으로 표현된 간접표현은 비공손 표현이 되고 있다. 즉, 청자의 행동을 비난하고 그런 행동을 삼가 달라는 간접표현이다.

4.2. 약속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

(22) 가. 결석 많이 하면 낙제시키겠어요.

나. 학과 활동 참가 안 하면 좋은 학점 안 주겠어요.

다. 너 죽을래?

라. 너 미쳤나?

(22 가)와 (22 나)는 청자가 화자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화자가 미래에 수행할 행위가 있다는 점으로 보아서 경고화행도 약속화행으로 볼 수 있다. 즉, 약속의 간접표현에는 경고화행도 포함된다. (22 다)는 경고의 화행을 질문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죽습니까?" 혹은 "죽으시겠습니까?" 등으로 표현하면 그 의미가 사라진다. (22 라)는 상대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진술을 질문문 형식을 통해서 경고를 나타내고 있다.

약속문 종결어미로 약속화행을 나타냈을 때는 청자에게 긍정적인 약속만 할 수 있다.

(23) 가. 내가 너를 때리마 (때리지 않오마).

나. 내가 너를 혼낼게 (혼내지 않을게).

다. 여러분께 피해가 가게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23) 예문들을 청자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것으로 바꾸면 모두 약속문 종결어미가 사용되지 못함을 볼 수 있다. 즉 청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는

것만 표현할 수 있다.

4.3.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의 경우

상대방에게 행위를 지시하거나 요구하는 명령문은 명령화행 이외에 진술화행이나 청유화행을 수행할 수 있으나 제약이 있다. 청자보다 화자가 우위에 있을 때만 공손이 결례되지 않는다. 따라서 명령문으로 수행되는 간접표현이윗사람에게는 사용되지 못한다.

(24) 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TV 볼륨을 좀 작게 하고 보세요.

나. 병원 좀 가세요. 저희 자식들 불효자로 만들 거예요?

다. 알았어요. 그만해요. 제가 때가 되면 결혼을 할게요.

라. 한번만 더 죽고 싶다고 해보세요.

(24)에서는 명령문이 진술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명령문은 윗사람에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그러면 안된다’는 경고와 책망을 진술화행으로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4 가)를 보면 결국 화자의 언표 내적 목표는 ‘전화는 꼭 받아야 한다’는 경고의 진술 화행을 수행하게 된다. (24 나)는 화자가 명령 화행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병원에 꼭 가야 한다’, ‘자식들이 책망을 안 듣게 해 주세요’ 명제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4 다)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혼에 대해 강박감을 주면 안 된다’라는 진술화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24 라)에서는 ‘죽고 싶다고 말하면 안된다’ 명제 내용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명령화행을 통한 간접표현은 상대방 행위에 대한 책망 혹은 원망 등을 완곡하게 표현하려는 의도를 가지지만 상대방의 지위 혹은 나이가 위인 경우 어떤 표현도 부정적 정서를 완화시키기는 힘들다.

5. 결론

한국어에서 공손성을 구현하려면 일단 경어법에 맞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공손성의 충분조건이 형성되지 못할 때에 화용론적 책략인 간접표현을 쓰게 된다. 본 연구는 한국어의 특징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공손성과 관련된 간접표현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간접표현은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정리하여 살펴보았다. 화행 문형에 따른 분류는 한국어 속 종결어미에 따라 수행되는 다섯 가지 기본적인 직접화행 문형을 진술, 명령, 청유, 약속, 질문으로 나누어 각각이 수행하는 간접표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 하나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공손성의 실현이 간접표현들을 사용하게 되는 요인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간접표현을 사용해서 야기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첫째, 간접표현이 공손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다. 간접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는 직접화행에서 오는 행동 부과의 충격을 피하여 완곡한 전달로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손성은 사람들이 간접표현을 사용하는 주된 동기임에 틀림없지만, 간접표현이 오히려 비공손적인 표현이 될 수 있다. 질문화행 간접표현에서의 ‘못하다’ 부정, 경고 화행, 명령 화행은윗사람에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셋째, 간접성의 정도가 클수록 공손성이 높다는 것이다. 넷째, 한 문장 형식에 의해 수행되는 간접표현이 여러 화행을 실행할 수 있다. 다섯째, 간접표현에서 한 개 이상의 형태소를 사용하면 공손성 정도를 높일 수 있다. 여섯째, 간접표현은 유형화될 수 있는 관습적 간접표현도 있지만, 상황 맥락에 따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유형화되기가 힘들고, 개인의 판단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공손성을 실현하기 위해 화자는 발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발화 명제에 대하여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으로서 간접표현의 간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간접표현은 간접성을 드러내는 언어 요소들에 의하여 공손성 정도를 수행한다. 앞으로의 연구에는 간접표현 사용 양상과 공손성 인식 요소의 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공손성 간접표현을 사용할 때 화자의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담의 정도, 힘과 권력, 친밀도, 격식성, 성별 등을 참고하여 실제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비교적 설득력이 있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현정(2004), 「공손법의 실현 양상」, 『담화와 인지』 11(3), 담화인지언어학회, 1-23.
- 김명운(2009), 「현대국어의 공손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선희(2001), 『우리 사회 속의 우리말』, 한국문화사.
- 김차균(1980), 「국어의 미정 형태소의 의미」, 『韓國言語文學』 19, 韓國言語文學會, 131-157.
- 김태자(1987), 『발화 분석의 화행의미론적 연구』, 탑출판사.
- 김태자(1989), 「간접화행과 대화적 함축」, 『국어학』 18, 131-152.
- 손세모돌(1989), 「행동 부과의 간접 표현 - 공손한 표현 방식」, 『한양어문』 7, 181-206.
- 이영준(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드라마의 간접화행 분석」, 『어문론집』 49(3), 중앙어문학회, 31-49,
- 이종철(2004), 『국어 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역락.
- 이준희(2001), 「명령문의 간접화행」, 『한국어 의미학』 8, 279-290.
- 이필영(2003), 「간접화행 해석의 조건과 방향」, 『텍스트언어학』 15, 313-339.
- 이해영(1996), 「현대 한국어 활용어미의 의미와 부담줄이기의 상관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희자(1983), 「' 겹' -의 언표내적 효력분석: 언어행위이론을 배경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령(2010), 「국어의 형태·통사적 공손 표지에 대한 연구」, 『청람어문교육』 41, 377-409.
- 장석진(1975), 「문답의 화용상」, 『어학연구』 11, 185-197,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전혜영(1995), 「한국어 공손현상과 '-겠-'의 화용론」, 『국어학』 26, 125-146.
- 전혜영(2004), 「한국어 공손표현의 의미」, 『한국어 의미학』 15, 12, 71-91.

- 정동수·이필영(2005), 「간접화행 판단의 제문제」, 『한국언어문화』 28, 47-67.
- 조준학(1979), 「영어와 국어의 honorifics 비교서설」, 『영어영문학』72, 한국영어영문학회, 325-340.
- 조준학(1980), 「화용론과 공손의 규칙」, 『어학연구』 16-1, 서울대 어학연구소, 1-11.
- 허상희(2009), 「한국어 공손법에 관련된 제문제들」, 『韓民族語文學』 54, 197-221.
- 扈貞煥(2012), 「한국어 ‘공손성’의 문제: 높임법과 공손표현」, 『韓國學研究論文集』(一), 中國文化大學韓國學研究中心, 103-129.
- Austin, J.L.(1962), *How to do things with word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김영진 역(1992), 『말과 행위』, 서광사).
- Brown, P. & S.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ice, H.P.(1975), “Logic and conversation”, In Cole, P. and J. Morgan,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3, New York: Academic Press, 41-58.
- Lakoff, R.(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292-305.
- Searle, J.R.(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 Press.
- Searle, J.R.(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in the Theory of Speech Acts*, Cambridge Univ. Press.